

Utilizing YouTube Channels for Korean Reading aloud Learning: Principles, Implementation, and Reflection

Park, Helena

Instruct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First author, susia1117@naver.com

Kim, Eun-ae

Assistant profess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Center, Rikkyo University, Japan

Second author, kimeunae@rikkyo.ac.jp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principles for the creation of a YouTube channel focused on Korean pronunciation learning, explore the operational aspects, and discuss improvements and directions through its execution.

Methods Drawing on principles from web-based cours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YouTube media, and previous studies on web-based lessons, this study emphasizes accessibility in YouTube media. It also incorporates aspects of learner participation and content authenticity. Above all, it integrates comprehensive functional education principles to anticipate the pedagogical effects of the pronunciation channel. Applying these four principles, the channel was developed, and videos were directly produced.

Conclusions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 existing channel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s and operates an actual YouTube channel, providing a case study based on real operational experiences. Furthermore, post-operation analysis involved examining learner responses and teacher reflections to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contributing to the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YouTube-based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words Web-based education, YouTube learning, Reading Aloud learning, Reading aloud, online learning cont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3.12.312.003

Received: Nov. 30. 2023 ; Reviewed: Dec. 10. 2023 ; Accepted: Dec. 15. 2023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음독 수업 사례 연구

박혜레나 · 김은애

목 차

1. 머리말
 2. 음독 채널의 제작 원리
 3. 수업 개발
 4. 채널 운영의 실제
 5. 맺음말
-
-

1. 머리말

1.1 연구의 필요성

국제 사회에서 한국과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의 관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뉴미디어 이용자 증가와 COVID-19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교육은 대면 교육의 대안이 아닌 고유의 학습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겠다.

현재 온라인 교육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많은 학습자들을 만난다. 그중 유튜브 채널은 방대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대부분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용한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무료 학습 채널들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의 용이함이다. 학습자들은 간단한 검색만으로 많은 학습 채널들을 찾을 수 있으며, 많은 채널 중 자신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손쉬운 접근은 많은 이들에게 한국어 학습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

www.kci.go.kr

고 친근감을 심어준다.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온라인 교육 콘텐츠들은 대부분 무료 콘텐츠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을 위해 금전적·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실 수업 학습자와는 학습 동기나 학습 방법, 학습량 등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양단희(2015: 295-296)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¹의 문제점으로 실시간 양방향성 부족, 감독 및 평가의 문제, 강좌당 학생 수 문제, 맞춤형 교육에 역행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달리 생각해 보면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대면 수업을 대체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온라인 교육을 대면 수업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만의 고유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독자적 교육 방법을 확립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본 연구는 유튜브 채널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어 음독² 학습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콘텐츠를 실제 기획하고 제작의 과정을 거쳐 게시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수많은 분석과 이론이 실제 제작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들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는 많은 한국어 현장 교사들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음독 학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원리를 설정한 후, 연구자들이 직접 교사로 참여해³ 15개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여 6개월간 운영하

1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인 MOOC는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발견하고 변형하려는 능동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기본 철학으로 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 사고를 통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영상을 공개하는 플랫폼이다. 최초의 MOOC는 2008년의 'Connectivism and Connective Knowledge'라는 강의이며, 이 강의에서 MOOC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한국에서 MOOC 서비스는 2007년 5월 '고등교육 교수 학습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Korea Open Course Ware, KOCW)'가 처음이다. 김성숙/김성조(2016). 대중 공개 강좌(MOOC)를 위한 한국어 교육 모형 개발 사례: 글로벌 MOOC와 K-MOOC.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4, 87-88.; 강승혜(201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MOOCs) 개발과 운영 실제: 'First Step Korean'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4, 5.

2 음독 학습은 읽기 학습 중 한 방법으로 외국어 교육에서는 '소리 내어 읽기(read aloud)'라 불리는 학습 방법이다. 읽기의 방법에는 '소리의 유무'에 따라 음독(oral reading)과 묵독(silent reading)이 있는데 (Brown, 2006), 이중 '소리 내어 읽기'는 음독에 속한다. 한국어교육에서 읽기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급증한 지난 2010년 이후부터이다.

3 본 연구의 음독 채널에서 음독 시범을 담당하는 교사1은 한국 내 대학에서 2006년부터 한국어교육을 담당해 왔으며, 아나운서 경력을 갖고 있어 한국어 학습자의 낭독 및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중심으로 말하기 교육에 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일본어 설명 및 동료 학습자 역할을 맡은 교사2는 일본 내에서 2000년부터 한국어교육을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 일본 내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다.

였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음독 채널 제작의 원리를 설정하고 3장에서는 제작 원리를 적용해 음독 채널을 개발한다. 4장에서는 수업 즉, 영상 콘텐츠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학습자 설문조사 및 교사 성찰을 실시하여 채널 운영의 개선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유튜브 관련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유튜브 채널 분석, 학습자의 학습 경험, 다른 SNS 채널과의 비교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되고 있다. 유튜브와 관련된 연구에서 송지훈(2018), 김민경(2019), 이종현(2020), 백순철/이예지/제갈덕주(2020), 김규리/김영주(2021), 김수중(2021), 쿠보타 미호(2022) 등이 있다.

송지훈(2018)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및 인기 등을 기준으로 9개의 채널을 선정하고 교수·학습 체계, 상호작용, 능동성, 시각적 요소 활용, 평가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 채널은 대부분 영어를 모어로 하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동영상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의 길이는 대체로 5분 전후였다. 영상 내용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료가 많으며, 영어 설명, 자막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채널이 학습 내용 및 학습 단계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학습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 힘든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민경(2019)은 5개의 한국어 교육 채널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교육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5개 채널에서는 어휘, 표현, 문화 콘텐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 요구, 흥미 중심 학습, 무료 학습 콘텐츠 제공, 이문화 소통 능력 향상 등의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종현(2020)은 한국어 교육 채널 개설 시 고려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적의 동영상 길이는 20분 내외이며, 한국어 및 학습자 모어 자막 동시 삽입, 다양한 시각 자료의 효과적 활용,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백순철 외(2020)에서는 유튜브 한국어 교육 관련 채널 중 인기 채널 및 동영상을 분석하고 교수자와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인기 채널의 특징으로는 첫째, “기업형” 운영이라는 점과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접근 용이성, 둘째, 교사가 한국계 원어민이라는 점, 셋째, 다양한 영상·편집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문화 요소가

반영된 콘텐츠라는 점을 들고 있다. 더불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영상 제작 지침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검색의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트 개발 등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김규리·김영주(2020)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온라인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플랫폼 모두 목표어를 설명에 영어 등의 매개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유튜브는 동영상, 인스타그램은 동영상, 이미지, 음성 파일을 통해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었다. 영상의 길이는 유튜브는 약 19분 전후, 인스타그램은 약 1분 전후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한국어 학습 분야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로는 ①문화, ②듣기, ③문법, ④발음 순으로 나타났다.

김수중(2021)은 한국어 교육 관련 유튜브 채널을 분석하였는데, ‘연습 및 활동의 다양성 부족’, ‘교수 및 학습자료의 비체계성’, ‘동영상 제작 및 배포의 지속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실 수업과 단순 비교하여 문제점을 추출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채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과 교실 수업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튜브 수업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 연구는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어 모어 화자 대상 한국어 채널을 분석한 연구로는 쿠보타 미호(2022)가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유튜브 채널 4개의 구성 체계를 분석하였고, 특히 문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채널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이미 운영 중인 채널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영상을 제작한 후, 실제 운영 사례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운영 후에는 학습자 반응 및 교사 성찰을 통해 개선점을 분석하여 유튜브 기반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음독 채널의 제작 원리

본 연구는 접근의 용이성, 학습자 참여성, 종합적 기능 교육을 유튜브 채널 제작 원리로 삼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의 유튜브의 학습 매체로서의 특성을 살펴 ‘접근의 용이성’

이라는 제작 원리를 추출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온라인 한국어 교육 개발을 위한 원리 중 ‘학습자 참여(홍은실, 2007; 진정란, 2013)’와 ‘내용의 실제성(홍은실, 2007)’을 제작 원리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기능 교육을 제작 원리로 정하였다. 각 원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2.1. 접근 용이성

쿠보타 미호(2022)에서는 유튜브 기능 및 장점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정리를 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중 송주형(2012), 김윤숙(2020)의 분석에 주목하였다. 먼저 송주형(2012: 64)에서는 유튜브 플랫폼의 장점으로 무료 동영상 업로드 기능과 손쉬운 공유, 검색의 용이성,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 등을 들었다. 또한 김윤숙(2020: 48)에서는 양방향 소통 기능, 자유로운 시청 시간, 손쉬운 반복 기능, 장르의 전문화 및 다양화, 공유의 편의성, 방대한 자료, 제작의 편의성 등을 유튜브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런데 이러한 유튜브의 매체적 장점은 접근의 용이성으로 귀결된다.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횟수만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학습에 대한 접근이 매우 용이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체의 특성이 학습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만큼 채널 제작 시에도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모어 설명, 자막 제공 등과 함께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학습에 임하게 하되, 일회성 학습에 그치지 않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2.2. 학습자 참여형

진정란(2013)은 온라인 콘텐츠 개발의 원리로 구조화⁴와 상호작용⁵을 꼽으면서, 콘텐츠의

4 구조화란 개별 학습의 필요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조화 시에는 콘텐츠에 들어갈 내용과 내용의 양 및 순서, 학습 내용 전개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의 방법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진정란(2013). 한국어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의 현황과 개발 과제. 외국어교육연구, 27(2), 152-153.

5 응용언어학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은 작용과 반작용이 교차되는 정보 교환 방식으로(박경자 외(2001). 응용언어학 사전. 서울: 경진문화사.)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말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웹에서는 인터넷 이용 시, 사용자가 매개체(인터넷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 등)를 이용해 의사소통하는

구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학습 자료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진정란, 2013: 153). 또한 Jonassen(1988; 홍은실, 2007: 328에서 재인용)은 상호작용을 ‘매체가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의 대화의 가능성을 지원하는 의사소통의 형태’라 하였는데, 매체 내에서 사용되는 게시판이나 댓글과 같은 것은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장치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는 학습자와 학습 자료와의 상호작용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학습자와 자료 내 교사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학습자 간 직접적 상호작용도 가능해졌다. 게시판이나 댓글 등 지연 상호작용뿐 아니라 실시간 방송 등 직접적이고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현실에서 학습자와 학습자료와의 상호작용은 다소 간접적이며 수동적인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작용’을 ‘학습자 참여형’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사용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자들은 플랫폼 특성 파악, 학습자 분석, 수업 설계 등으로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준비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단순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습자 참여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학습자의 참여 여부를 교사(제작자)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학습자 참여 환경을 최대한 조성한다면 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3. 내용의 실제성

홍은실(2007: 318)은 웹기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의지가 있어야만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학습자 중심성은 ‘자기 주도성’⁶, ‘상호작용’, ‘실제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홍은실, 2007: 318). 이중 실제성은 학습자에게 실제적이며 풍부한 자료 및 과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홍은실, 2007: 330).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제는 학습자들의 실제 의사소통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실제적 과제(authentic task)⁷는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유지시킬 수

것을 뜻한다.

6 자기주도성은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개발된 개념으로 ‘타인의 조력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학습자가 주도권(initiative)을 가지는 학습 과정으로서,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자원을 확인하며, 중요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인데(놀즈, 1975; 이화진, 2003에서 재인용), 학습자가 학습의 중심이 되어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할 때 자기주도적 학습이 일어난다. 홍은실, 2007: 327.

있다는 것이다(홍은실, 2007: 330).

이와 같이 채널의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이는 대화뿐만 아니라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한 실제적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적 텍스트란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 자료를 교육 목적에 맞게 변형한 자료인 만큼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홍은실, 2007:328).

2.4. 종합적 기능 교육

멀티미디어 교육의 가장 큰 이점은 접근의 용이성과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져 학습자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 하겠다(이승민, 1998). 무엇보다 시청각 자료는 학습 동기와 흥미를 높이는 교육 방법 중 하나인데(이혜옥, 2010), 시청각 자극의 입력으로 학습자의 듣기, 읽기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 구성으로 산출 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음독 학습을 통한 통합 기능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김현진(2020: 56-57)에서는 음독 시 소리 내어 읽으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어 뇌가 더욱 자극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언어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리 내어 읽기의 교육적 효과를 주장한다. 또한 소리 내어 읽기는 단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며, 읽기의 정확성과 속도에도 효과적이며(정경화, 2012), 묵독보다 언어 정보의 이해와 산출에 더 효과적이다(왕역문·원미진, 2017).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접근의 용이성, 학습자 참여형, 내용의 실제성, 종합적 기능 교육을 제작 원리로 삼고 유튜브 음독 채널을 개발한다. 3장에서 구체적인 개발 과정을 살펴보겠다.

3. 수업 개발

3.1 수업 개요

음독 채널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학습 목표 및 학습 대상자 설정, 텍스트 길이, 영상 길이 설정, 교재 및 부교재 설정, 교사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www.kci.go.kr

먼저 본 연구는 일본어를 매개 언어로 하여 학습자들이 영상에서 제공된 텍스트를 듣고 따라 하면서 의미를 음미하고, 과제 수행을 통해 한국어 듣기, 읽기, 말하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았다. 텍스트는 저작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작물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이며, 기존의 작품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학습 편의를 돕기 위해 텍스트 및 소리 내어 읽기에 활용될 문장을 PPT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어 교사 두 명⁷을 진행자로 정했다. 이 중 교사1은 텍스트 읽기, 음성 파일 녹음 등을 담당하고, 교사2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여 언어 요소를 설명하며, 음독 시 학습자 역할을 맡아 텍스트를 따라 읽기를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효율적 한국어 학습 영상의 길이가 20분 미만이라는 분석(김규리·김영주, 2020)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영상의 길이는 20분 미만으로 결정하되, 텍스트에 따라 영상의 전체 길이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유튜브 음독 채널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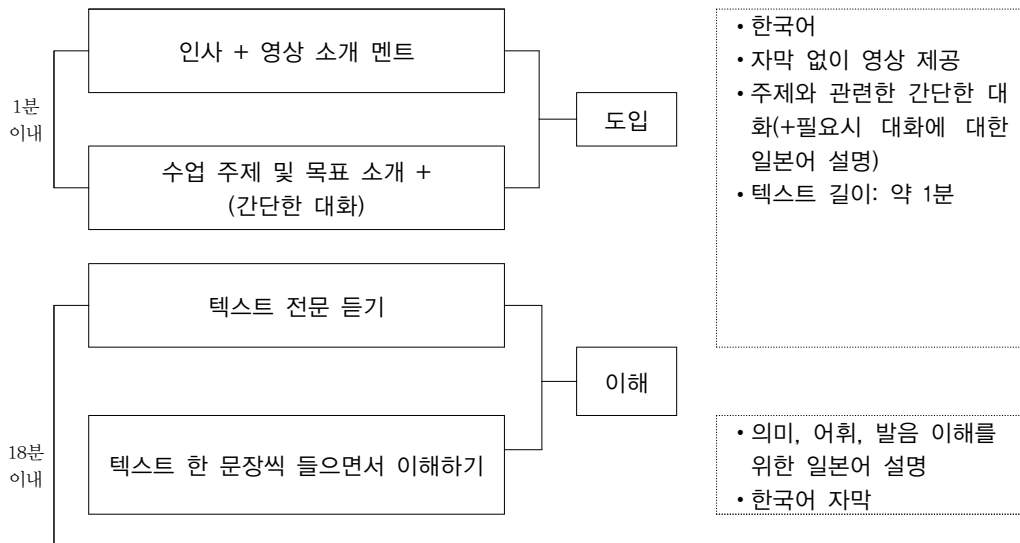
수업명(영상 제목)	한국어 음독 과제 ⁸	
채널 학습 목표	텍스트를 듣고 따라 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음미하고, 음독 과제 수행을 통해 한국어 듣기, 읽기, 말하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한다.	
학습 대상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초중급 학습자	
텍스트	운문, 산문 형식의 창작 혹은 기존 작품	
영상 길이	20분 미만	
교재 및 부교재	PPT 및 음성 파일	
수업 단계	도입-이해-음독 과제 수행-마무리	
교수자	특성	언어 교사
	전공	①교사1: 한국어교육(박사) ②교사2: 한일대조연구(박사)
	강의 언어	①교사1: 한국어 ②교사2: 한국어+일본어
	영상 내 역할	①교사1: 음독 시범, 발음 지도 ②교사2: 전체 진행(한국어/일본어), 내용 해설(일본어), 학습자(함께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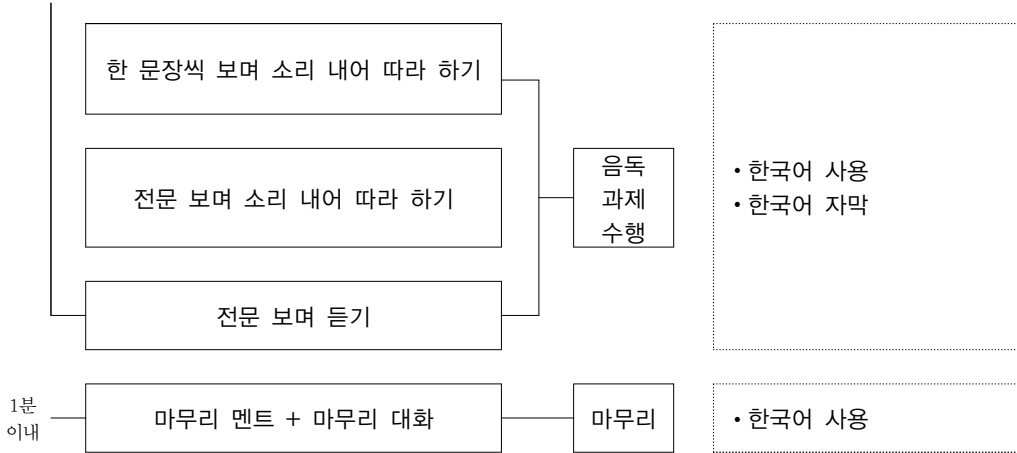
7 두 명의 교사로 영상을 구성하기로 한 이유는 동료 학습자와 함께 공부할 수 없는 온라인 학습의 특성상 학습자들이 고립감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교사 한 명이 동료 학습자 역할을 하여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음독 과제 수행을 유도하고, 고립감을 줄여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8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실제 수행에 의미를 두고, 수행 후 과제 완수의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과제'를 포함하여 제목을 정하였다.

본 연구는 영상 수업 단계를 도입-이해-음독 과제 수행-마무리 네 단계로 설정하였다. 도입 단계는 영상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채널의 특성을 설명하는 안내 멘트와 교사 소개, 주제 소개가 이어진다. 대면 수업 시간에는 도입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본격적인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환기해야 하나 이 단계가 너무 느슨하거나 지루하면 학습자들이 시청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도입은 필수적인 정보만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해 단계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는 단계로, 교사는 먼저 텍스트를 공개하고 음성 파일을 실행한다. 음성 파일을 들은 후 교사2는 일본어를 사용해 텍스트를 설명한다. 음독 과제 수행 단계는 의미의 이해 이후, 학습자들이 소리 내어 읽기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들은 문장별 읽기를 실시하는데, 교사들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교사1이 먼저 읽으면 학습자가 따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시청자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사2가 동료 학습자 역할을 맡아 뒤이어 읽는다. 문장별 읽기 후에는 전문을 다시 읽으며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데, 전문 읽기 또한 교사1-교사2 순서로 읽는다.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을 다시 듣는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교사들이 텍스트 주제와 관련해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끝인사를 하는데, 이 단계는 한국어로만 진행된다. 도입 단계와 마찬가지로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어 음독과제 채널의 수업 단계





제목은 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정했으며, 기존의 작품은 기존 작품 제목을 그대로 콘텐츠의 제목으로 삼았다.

15개의 콘텐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 음독 채널 콘텐츠의 개요

콘텐츠	제목	수준	영상 길이	텍스트 ⁹ 길이
1	화창한 날에는	중급-상	12분 42초	48초
2	휴일	중급-상	12분 24초	44초
3	생각의 차이	중급-상	18분 30초	1분 08초
4	징검다리	중급-상	9분 34초	30초
5	가을	초급	6분 04초	17초
6	친구	초급	9분 14초	32초
7	나태주 시인의 ‘풀꽃’	초급	8분 20초	35초
8	눈이 부시게	중급-상	14분 17초	1분 12초
9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중급-상	9분 29초	54초
10	청소	중급-하	8분 10초	37초
11	온라인 수업	중급-하	10분 32초	53초
12	내 친구 코코	중급-상	9분 41초	45초
13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선해진다	중급-상	8분 13초	33초
14	성격에 대해	중급-상	9분 40초	45초
15	수미와 나	중급-상	11분 51초	55초

3.2 제작 원리의 적용

이 절에서는 제작 원리를 적용하여 음독 채널 제작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접근 용이성 측면에서는 동영상의 학습 내용을 학습자의 모어로 설명하기로 하였다.¹⁰ 외국어 교육에서 목표어를 목표어를 사용해 학습할 때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 학습은 기존의 교육 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무엇보다 학습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동기로 재미와 학습을 함께하고자 하는 시청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영상 시간 또한 시간은 10분가량으로 설정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실제 교실 수업은 50분(일본은 90분, 100분)으로 진행되나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환경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수업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동영상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재시청하거나 반복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콘텐츠 재접근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락 미디어로서 큰 역할을 하는 유튜브는 학습자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언어를 학습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한 번에 많은 것을 교수하려는 것은 자칫 학습자들의 접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음독 채널 콘텐츠는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학습자들이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회차 콘텐츠가 텍스트의 난도가 차이가 있긴 하나 소리 내어 읽기가 주된 학습 과제인 점과 일본어 설명이 있다는 점에서 급수를 초월하여 학습이 가능한 콘텐츠인 것이다. 또한 콘텐츠 길이를 대부분 10분 내외로 구성해 학습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텍스트 길이도 1분 내외로 구성하여 텍스트 내용 이해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텍스트는 실제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5회차 텍스트 가운데 4편이 기존 문학작품 혹은 드라마 대본으로¹¹ 모두 실제 의사소통 자료를 텍스트로 활용한 것이다. 또한 창작 텍스트 또한 교사가 창작한 일기, 수필 등의 형식으로 구성된 실제적 자료로서 텍스트 내에서 다양한 문체를 접할 수 있게 해 학습자들의 실제적 의사소통을 돕고자 하였다. 3회차 ‘생각의 차이’ 텍스트¹²를 예로 들면, 이 텍스트는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9 영상에서 활용한 녹음 파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10 영상 내 교사의 설명 외에도 영상 설명란에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어휘와 표현까지 자세히 모어 설명을 덧붙이기로 하였다.

11 기존 작품은 다음과 같다. 7회차: 나태주 시인의 ‘풀꽃’, 8회차: 드라마 ‘눈이 부시게’ 중에서 발췌, 9회차, 13회차: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 중에서 발췌.

드러내는 글이다. 이 텍스트는 대부분 독백체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에게 제공할 텍스트 녹음 파일은 그 상황에 맞는 억양이나 감정 등을 모두 살려 녹음하여, 학습자들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상상하며 억양과 느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독 수업은 학습자들의 참여가 핵심이다. 본 연구의 음독 채널에서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두 명의 교사가 진행하였다. 이 채널의 영상은 실시간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는 시청 중에도 언제든지 재생을 중지하고 재시청하거나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학습자가 직접 재생을 중지하고 연습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운 것으로 판단하여 두 명의 교사(교사1, 교사2) 중 교사2가 학습자의 입장에서 음독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음독 연습을 하면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물론 학습자 참여를 고려해 영상에 휴지를 포함할 수도 있으나 학습자의 고립감을 줄일 수 있도록 교사2가 동료 학습자 역할을 겸한다. 영상의 길이가 18분으로 가장 길었던 3회차 콘텐츠 ‘생각의 차이’를 예로 들면, 7분 55초부터 약 9분 가량 학습자들이 듣고 소리 내어 읽는 과제 수행이 이어진다. 6분으로 길이가 가장 짧았던 5회차 콘텐츠 ‘가을’의 경우도 이해 단계가 끝나는 2분가량부터 약 3분 동안 듣고 따라 하는 음독 과제가 수행되었다. 비록 학습자들의 참여를 직접 관찰할 수 없으나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과제에 임할 수 있도록 휴지 대신 교사2가 소리 내어 읽으며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본 연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텍스트 녹음 파일과 영상의 읽기, 교사의 대화 등을 통하여 듣기 학습을 할 수 있다. 특히 동료 학습자 역할을 하는 교사2

12 텍스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개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왕재수 김 과장이 나한테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하겠어.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근데 어떻게 개가 그렇게 말하냐고!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갠, 이제 내 친구도 뭐도 아냐.
누군가 그랬지.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든 그건 상관없다고.
근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몰라 줄 때 그건 정말 힘든 거라고.
가만, 잠깐만. 뭐야? 나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설마 나 개 좋아하나?
내 안의 감정은 어느새 분노의 감정에서 묘한 설렘으로 바뀌어 간다.
그리고 그 설렘은 불같은 분노를 조금씩 사그라들게 한다.

의 목소리를 들으며 연습할 수 있으므로 발음 연습과 함께 말하기 능력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모든 텍스트가 PPT로 제공되므로 읽기 능력 또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소리 내어 읽기 위주로 진행되는 영상이어서 쓰기 학습은 학습자 자율에 맡겨야 하는 약점이 있으나, 대학 강의 등에서 부교재로 활용하여 음독 내용과 동일한 주제로 작문을 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쓰기 학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4. 채널 운영의 실제

4.1 채널 운영

4장에서는 채널 운영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음독 채널은 <표 2>에서와 같이 중급-상 학습자용 콘텐츠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3장에서는 중급-상 학습자용 콘텐츠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15회차 콘텐츠의 실재를 살펴보겠다. 15회차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15회차 콘텐츠 기본 정보

콘텐츠명	헤레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음독과제-⑤수미와 나	
학습 대상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중급-상 학습자	
채널 목표	텍스트를 듣고 따라 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음미하고, 음독 과제 수행을 통해 한국어 듣기, 읽기, 말하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한다.	
회차 영상 목표	산문 텍스트를 듣고 읽고 따라 하면서 성격 관련 표현이 포함된 내용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한국어 듣기와 읽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한다.	
영상 시간	11분 51초	
텍스트	형식	창작 산문 텍스트
	길이	55초

1) 도입 단계(~ 37")

교사들은 간단히 인사한다. 인사 후 교사2가 채널 소개 멘트¹³를 한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www.kci.go.kr

■ 전문:

이 영상은 한국어 낭독을 연습하는 영상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한국어에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낭독 연습도 하시고 필요로 하는 한국어 표현도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후 당 회차가 성격에 관한 주제로 진행됨을 밝힌다. 이해 단계가 시작되기 전 교사1은 PPT 화면을 공유한다.

2) 이해 단계(~ 6')

먼저 전문을 음성 파일로 듣는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 텍스트:

수미와 나는 친구가 된 지 올해로 15년이 되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짝으로 만나
함께 공부하고 도시락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게 됐다.
내 친구는 참 착하고 바른 사람이다.
하지만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가끔은 조심스럽다.
특히 물건을 아주 깐깐하게 고른다.
그래서 수미에게 선물을 할 때
나는 꽤 많은 고민을 하는 편이다.
친구는 나에게 나처럼 좀 덜렁대지만
무뎀하고 유쾌한 친구가 있어서 좋다고 했다.
나도 좀 깐깐하지만 침착하고 차분한 내 친구가 참 좋다.

음성 파일로 전체 듣기를 실시한 후 교사1이 한 문장씩 한국어로 읽는다. 이때, 교사2는 일본어로 문장을 설명한다. 문장 설명 후, 익혀야 할 어휘가 있으면 추가로 설명한다. 이해 단계에서 설명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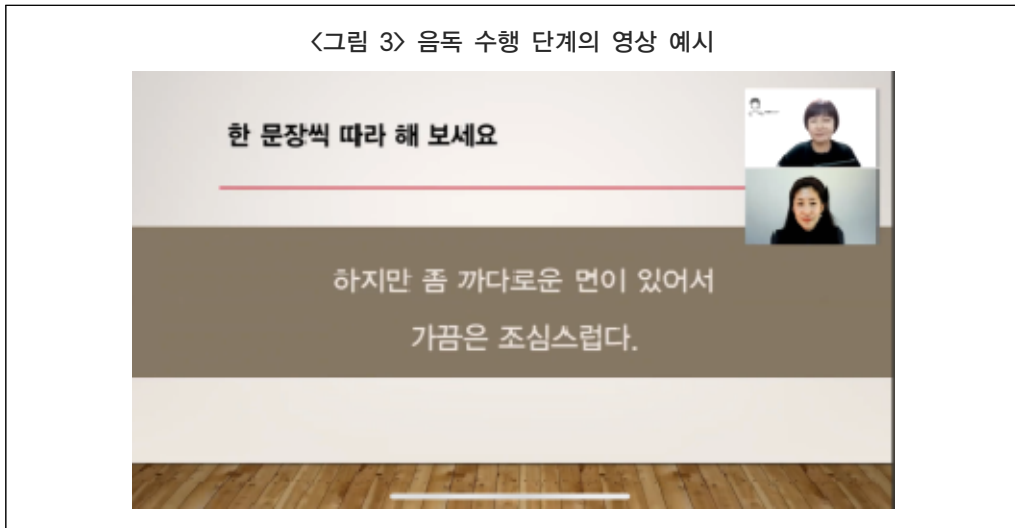
- 일본어 설명 어휘: 짝, 착하다, 바르다, 까다롭다, 깐깐하다, 침착하다, 덜렁대다, 무뎀하다, 차분하다

13 모듈식 구성으로 인해 새로운 학습자들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 채널에서는 매회차 도입 단계에서 영상 소개 멘트를 하였다.

<그림 2> 이해 단계의 영상 예시



3) 음독 과제 수행 단계(~ 11'30")



<그림 3>과 같이 음독 과제 수행 단계에서는 한 문장씩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를 실시한다. 이때, 교사1이 먼저 읽고, 교사2가 학습자 역할을 담당하며 뒤따라 읽는다. 따라서 교사 2는 교사1보다 다소 느린 속도로 문장을 읽는다. 유튜브에서는 반복 횟수 및 속도 조절을 학습자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으므로 한 문장씩 보며 따라 하기는 한 번만 실시한다. 이후 전체 의미 파악하며 읽기 위해 전문 보며 한 문장씩 따라 하기를 실시한다. 그 후, 음성 파일로 전체를 듣는다.

4) 마무리 단계(~ 11'52")

교사2는 시청자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친구인지 질문하며 마무리 인사를 한다. 영상의 길이 및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간단한 인사로 마무리한다.

4.2 개선점 분석

4.2.1. 학습자 설문조사

본 연구는 해당 채널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 대학생 학습자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⁴ 설문 항목은 폐쇄형 6문항(5점 척도), 개방형 1문항이었다. 구체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폐쇄형 문항>

- ① 시청한 영상의 길이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② 시청한 영상의 '읽고 따라 하기' 연습량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③ 일본어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④ 시청한 영상은 듣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⑤ 시청한 영상은 읽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⑥ 시청한 영상은 말하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개방형 문항>

- ⑦ 시청한 영상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문항에 대한 학습자 의견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¹⁵ 개선점

14 설문조사 일시는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까지이며, 설문 대상은 일본 후쿠오카 지역 대학 2곳의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 123명이었다.

15 본 연구는 폐쇄형 문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본 설문이 교사2의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LMS의 특성상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쇄형 질문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모두 90-99%가량으로 나타나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주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들 중 이름이 밝혀지는 데 부담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과 상이한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고 본 연구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남겼는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막 추가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모어(일본어) 자막 추가였다. 본 연구에서 운영한 채널에서는 학습자들이 목표어 학습에 모어의 활용을 최소화하고자 일본어 자막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학습자들은 모어 자막 추가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목표어로 이해하고 외국어에 대한 모호함을 견디면서 학습에 도전하는 교실 학습과는 달리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좀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학습자들도 쉽고 간편하게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듯했다. 학습자들은 단어의 뜻이나 발음 변화 설명에 대한 요구부터 문장 전체, 교사들의 대화 등 거의 모든 단계에서의 자막 번역을 요구하고 있었다.

2) 반복 연습 및 속도 조절 연습 추가

총 2회의 읽기 연습을 좀 더 늘리길 원한다는 응답과 느린 속도 연습부터 정상 속도 연습까지 속도를 조절하여 연습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영상을 시청하는 학습자들이 필요에 따라 기술적 조작을 통해 쉽게 영상을 반복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리 내어 읽기 연습을 문장별 2회로 제한하여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반복 연습으로 인해 영상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지루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이용자들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모든 기능을 콘텐츠 내에서 제공해 주길 원하는 등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있어 학습자 편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학습 실재감¹⁶ 및 고립감 개선

학습자들 중 교사의 얼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아쉬웠다며 PPT 창을 줄이고 교사의 얼굴을 키웠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PPT로 채워진 화면에서 학습자가 수업의 실재감을 느끼지 못하며, 혼자 공부하고 있다는 고립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들의 대화에 일본어 번역 자막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자막 요청이 아니라 고립감

16 실재감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느낌’(Steuer, 1992; 임지은·이민혜, 2020: 463 재인용)을 뜻한다.

해소를 위한 요구일 것이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대화를 이해하며 상호작용에 간접 참여하고 싶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고립감을 다소 해소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4.2.2. 교사 성찰

채널을 운영한 뒤 교사들 또한 교사 성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접근 용이성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조회수를 보면 가장 낮은 회차의 조회수는 153회에 불과하였으며, 가장 높은 회차의 조회수도 879회에 그쳤다.¹⁷ 교사들은 영상을 준비하여 업로드하면서 해시태그 입력 등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유튜브 플랫폼 내 방대한 채널들 속에서 시청자가 이 채널을 찾아서 시청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교사들이 교실 수업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수업의 차이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해시태그 작성, 상호작용 독려, 지속적 업로드 등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좀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내용의 실제성 측면에서는 음독 텍스트의 특성상 일기, 시, 에세이 등 읽기 자료는 풍부히 제공되었으나 실제 대화 상황의 구어 자료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음독 자료로 실제성이 있으나 내용이 풍부하고 감정적 여운을 줄 수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였는데, 이런 이유로 구어 자료는 많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랑받고 있는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대본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일기, 에세이 형식의 텍스트가 활용되었으므로 내용의 실제성 측면에서는 제작 원리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습자 참여 측면은 학습자 반응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음독 과제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학습자 따라 하기 부분을 휴지로 처리하지 않고 교사1이 따라 하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학습자 참여 독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런데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은 매우 저조하였다. 총 15회차 영상에 댓글은 10개 미만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마저도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댓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또한 교사의 적극적 태도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 교사들은 영상을 제작하며 댓글에 대한 독려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교사가 상호

¹⁷ 2023년 11월 28일 현재.

작용을 유도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종합적 기능 교육은 말하기와 쓰기 등 표현 교육의 부족함이 지적된다. 학습자들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듣기와 읽기 능력을 함양하고 소리 내어 읽기를 통해 음독을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쓰면서 표현 능력을 함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말하기와 쓰기를 학습자가 시도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이 영상의 부교재화를 고민하였다. 이 영상 자체를 교재로 삼아 학습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학습자들의 종합적 기능 교육을 위해 교실 수업의 보충교재, 혹은 부교재로 이 영상을 활용한다면 교사들이 학습자들의 이해 능력 향상의 점진 및 말하기와 쓰기 능력의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유튜브 음독 교육을 위해 기초 설계부터 동영상 제공 및 운영까지 실제 수행하였다. 그 후, 학습자 반응을 조사하고 교사 성찰을 실시하여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실제 수행 과정을 정리하면, 먼저 본 연구는 음독 채널의 제작을 위해 접근의 용이성, 내용의 실제성, 학습자 참여, 종합적 기능 교육 등 네 가지 제작 원리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업 단계에 제작 원리를 적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였다. 제작 편수는 총 15편이었으며, 운영 기간은 6개월이었다. 채널 운영 후, 실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학습자 설문조사와 교사 성찰을 실시하였는데, 학습자들은 학습의 편의성을 위해 일본어 자막 추가를 원하고 있었으며, 속도 조절, 음독 과제의 추가도 원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교사 얼굴 화면 키우기, 교사 대화 일본어 번역 추가를 요구하였다.

교사 성찰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였다. 온라인 수업을 구안하는 교사 및 운영자들은 온라인 수업, 채널을 운영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의 전반적 특성을 숙지해야 한다. 한국어에 관심이 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교실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고,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개 강의의 특성을 살리려면 교육적 목표 외에 온라인의 기술적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이 온라인 수업의 기술적 특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기술적인

대처를 했다면 더 많은 학습자들의 학습에 영상이 활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론과 실천을 융합한 교육 및 연구를 목표로 하였다. 채널 운영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의 원리를 세운 후, 이를 토대로 6개월에 걸쳐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채널 운영 이후 실시한 학습자 설문조사 및 교사 성찰을 통해 개선 사항도 분석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진행한다면 한 단계 발전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References]

- Baek, S., Lee, Y. & Jegal, D. (2021). Analysis of Popular Channels and Excellent Educational Content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on YouTube, Baedalmal, Vol. 68, Baedalmal Society, 175-204.
- Brown, D.(2006).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3rd Edition), London: Pearson Longman. 371-373.
- Jin, Jongnan (2013). A Study of Developing Online Contents for KF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27(2), 149-175.
- Hong, Eun-sil (2007). Are Web-Based Korean Instruction Programs Learner-Centered. Bilingual Research. 33, 317-362.
- Im, J. & Lee, M. (2020). The Influence of Perceived Realism on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Active Participation among Online Learners. Educational Methodology Research, 32(3), 461-485. Korean Language Education Society.
- Jung, Kyunghwa (2012). The Effect of Articulatory Reading on the Fluency of Korean Reading: Focused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 Kim, G. & Kim, Y. (2021). Analysis of Online KFL Content: Focused on YouTube and Instagram.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32(4), 31-63.
- Kim, Hyunjin (2020). The Effects of Oral or Silent Reading to Reading Comprehension for Beginners in Korean Language Learning.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56, 51-78.
- Kim, Minkyung (2019). Analysi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hannel on YouTub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8), 941-964.
- Kim, Sujong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Materials for Korean Education on the YouTube Platform,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Yoonsuk (2020). A Study on the Usefulness and Utilization Methods of Media in Korean Cultural Education - Focused on YouTube's '영국남자' (Korean Englishman),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 Kubota Miho (2022). Analysis of YouTube Platform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Japanese Learners - Focusing on Structural System and Cultural Items, Master's Thesis, Joo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ee, Jonghyun (2020). A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 of Foreign Learners Using YouTube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1, No. 6, Asia Culture Academic Society, 285-300.
- Song, Jihun (2018). Analysis of YouTube Channel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Song, Juhung (2012). A Study on Social Network Sites as Objects of Record Management: Focused on Facebook, Twitter, Blogs, and YouTube,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Steuer, J., Defining virtual reality: Dimensions determining telepres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42(4), 73-93.
- Wang, U. & Won, M.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n Reading Methods on Advanced Learners'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by Comparing Oral Reading and Silent Reading.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72. 205-228.
- Yang, Danhee (2015). A Critical Review on the Inherent Problems of MOOC.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6), 293-299.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음독 수업 사례 연구

박혜레나

전북대학교 국제이공학부 강사

김은애

일본 릿쿄대학 외국어교육연구센터 준교수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한국어 음독 학습에 중점을 두고 제작 원리를 설정한 후 운영을 통해 개선점 및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유튜브 매체의 특성과 선행 연구에서의 웹 기반 수업 제작 원리 중 음독 채널 수업의 제작 원리를 추출하였다. 유튜브 매체의 특성에서 접근의 용이성을, 선행 연구에서 학습자 참여형, 내용의 실제성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독 채널의 학습적 효과를 기대해 제작 원리로 종합적 기능 교육을 포함하였다. 이 네 가지 제작 원리를 적용하여 채널을 개발하고 영상을 직접 제작하였다.

결론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이미 운영 중인 채널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실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실제 운영한 사례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운영 후에는 학습자 반응 및 교사 성찰을 통해 개선점을 분석하여 유튜브 기반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핵심어 웹 기반 교육, 유튜브 학습, 음독 학습, 소리 내어 읽기, 온라인 학습 콘텐츠, 한국어 교육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